

초등 5학년
독후활동지 (학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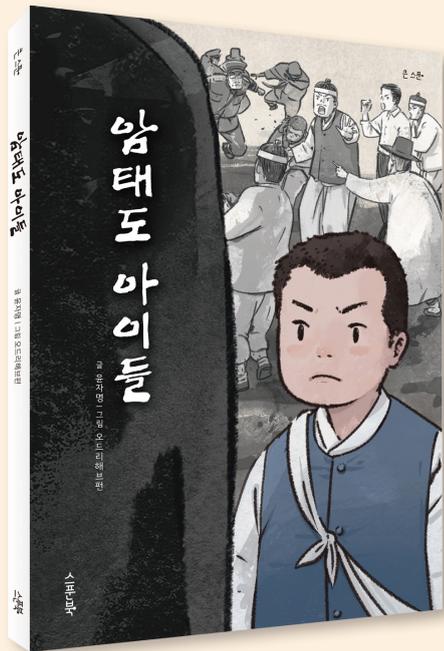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암태도 아이들

글 윤자명 | 그림 오드리해브펀

스폰북



암태도 아이들

- 글: 윤자명
- 출판사: 스펀북
- 분량: 158쪽
- 교과 연계: [국어 5-1] 가 4. 작품에 대한 생각
[국어 5-2] 가 1. 문학이 주는 감동
- 그림: 오드리해브펀
- 정가: 12,000원
- 대상: 초등 고학년

📖 책 소개

정민의 아버지를 필두로 한 암태도 농민들은 어마어마한 소작료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소작인회를 결성합니다.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요구를 전하는 대회 날, 일본 순사들은 이들을 잡아갑니다. 농민들은 송덕비를 끌어내리고 단식 농성을 벌이며 행동을 시작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 아사 동맹. 정민이는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소작인들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독서 전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암태도 아이들》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와 제목을 보며 드는 생각
1	
2	
3	



독서 전

• 《암태도 아이들》의 뒷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굶어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 농성을 벌였던 600여 명의 민초 이야기

어대지를 요 삼고 창공을 이불 삼아
입은 옷에야 흙이 묻든지 말든지,
줄어드는 창자야 끊어지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 집을 떠날 때 걱정만 마음으로
습기가 가득한 밤이슬을 맞으면서
단식 농성을 벌인 암태도 소작쟁의!

농민의 굳건한 생의 의지를 담은 역사 동화 《암태도 아이들》,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암태도 소작쟁의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나요?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예상해 보세요.





독서 중

《암태도 아이들》의 일부입니다. 정민이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냈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써 보세요.

[18쪽]

“산삼 캐기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걸 하면 돼.”

정민은 그다음 말이 궁금해서 용수 입을 바라보았다.

“내가 육지 학교에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 산수가 꼴찌라서…….”

“그거야,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나와 뭐 상관이야?”

여기까지 들으면서도 정민은 용수 속셈을 몰랐다.

“이번 산수 시험만 네가 답을 보여 주면 돼. 너무 쉽지?”

“뭐라고? 이치로 선생님이 아시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그것까지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시험 날이 코앞이니 정민은 고민에 휩싸였다.

집이 가까워지면서 정민은 아버지와 의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용수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아버지께 털어놓으면 해결 방법이 생길 것이다.

.....
.....
.....
.....





독서 중

• 《암태도 아이들》의 일부입니다. 질문에 답해 보세요.

[51쪽]

태준 형님의 목청이 점점 높아졌다. 감정이 북받치는지 말끝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을 치기도 했다.

“허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쇠를 굽듯이 언성을 높이며 들어선 사람은 ()였다. 다리에 짝 달라 붙는 당고 바지를 입고 납작한 모자를 썼는데, 모자는 꼭 추석날 잘못 빗어 터진 송편 같 았다.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을 보자, 회원들은 못 볼꼴이라도 본 듯 고개를 돌렸다. () 뒤로는 흥 지주네 머슴들과 흥 지주네 일가친척들이 따라왔다.

[53쪽]

정민이 고개를 숙인 뒤, 아버지를 찾았으나 어느새 안 보였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는 데, 누군가 정민의 옷소매를 잡았다.

“급장, 이 동네에 사는구나.”

턱에 수염이 거뭇하게 나기 시작한 옛된 총각이 환하게 웃었다.

“누구신지……?”

1 태준 형님의 말에 언성을 높이며 등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2 정민이 옷소매를 잡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3 최 마름은 소작 쟁의를 방해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



독서 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3쪽]

다리에 힘이 짝 빠져 버린 정민이 느릿느릿 논둑을 딛고 넓은 윗길로 올라왔다. 건너편 동네는 한눈에도 정민이네 사는 곳과는 달랐다. 바로 암태도 최고 부자 홍 지주네가 사는 수곡리였다. 어스름 녀이라 더욱 검게 보이는 기와지붕이 고래 등처럼 솟아 있었다. 보통학교 운동장만큼 넓은 바깥마당과 높은 사랑채 사이에는 교실 대여섯 개를 이어 놓은 듯 큰 창고가 당당하게 서 있다. 곧 들판의 벼들이 저 창고에 쌓일 것이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꾼 벼를 추수해서 이곳까지 가져다주는 일이 남았다. 땅거미가 진 마당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 들판에 사람이 왜 하나도 안 보이지? 작년 이맘땐 해가 저도 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민은 의아한 생각에 다시 들판을 휘둘러보았다. 사람은커녕 허수아비도 안 보였다. 노란 들판과 갯벌 사이가 먹으로 그은 듯 또렷할 뿐이었다.

‘어른들이 전부 게으름 피우기로 작정한 건가? 올 아버지도?’

요즘 아버지는 들에도 안 나가고 집에도 잘 없었다. 정민은 며칠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홍 지주네를 벗어나 남향 선창가 길이 합쳐지는 신작로에서 정민은 똑 멈춰 섰다. 길가에 우람하게 버티고 선 송덕비가 정민을 붙잡았다. 송덕비 근처에서 오줌을 안 똥으면, 오늘처럼 용수한테 당하진 않았을 텐데.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송덕비 앞면에 적힌 글귀를 보니 속까지 뒤틀렸다.

1 들판에 아무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송덕비는 어떻게 되었나요?



독서 후

다음은 《암태도 아이들》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독서 후

다음은 《암태도 아이들》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독서 후

암태도의 상황을 세상에 알리는 정민이의 호소문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나요? 정민이의 글을 참고해서 호소문을 써 보아요.

[150-151쪽]

암태도 소년의 호소

저는 서해 암태도에 사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홍병두 지주님께서는 부디 마음을 여시고 다른 곳 지주들처럼 소작료를 4할만 받아 주십시오.

암태도의 기름진 농토에서 지주님과 소작 농부가 함께 오손도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어서 암태도의 농사꾼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감옥에 가 있는 억울한 농민들을 속히 논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_____입니다.



독서 후

《암태도 아이들》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1 암태도 소작 쟁의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된 매체는 무엇인가요?

2 아사 동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 아사 동맹에 참여하며 목포에 온 정민이에게 영복이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요?

4 정민이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요?
